

“소설 쓰고 밥 일구며 지인과 술잔도 기울이죠”

최근 일곡도서관 인문학 특강 구례 출신 정지아 작가

1990년 소설 ‘빨치산의 딸’로 문단 큰 반향
조선대 문창과서 소설 가르치며 창작 활동
고민 깊은 청춘들의 이야기 소설 구상 중

“때때로 강연을 하고, 게으르게 소설을 쓰고, 더 게으르게 겨우 저 먹을 밥을 일구며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구례까지 찾아와준 지인들과 지리산을 바라보며 술잔을 기울이며 그렇게 살고 있지요.”

정지아 작가는 지난 2011년 고향 구례로 귀향했다. 그보다 앞서 2008년 부친이 돌아가시고 홀로 계신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다만 일년이라도 어머니 곁을 지키고 싶어” 본래의 뱃자리로 돌아왔다.

정 작가는 지난 1990년 빨치산 부모님 이야기를 소설로 형상화한 ‘빨치산의 딸’로 문단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운동권 시절 쓴 3편짜리 소설은 출간 즉시 국가보안법에 의해 판금조치를 당했으며 출판사 발행인이 구속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작가에게는 ‘빨치산의 딸’이라는 강렬한 이미지가 따라다닌다. 지리산 자락에 자리한 작가의 고향 구례는 이데올로기의 격전지이기도 했다. 실제 그녀의 부모님 또한 수년간 빨치산 생활을 했고, 그 탓에 수형생활을 해야 했다.

작가는 귀향 후 몇 년간 광주대에서 소설 창작 강의를 했다. 지금은 조선대 문창과에서 소설을 가르치며 틈틈이 창작을 한다. 최근 작가는 광주 일곡도서관에서 ‘사소하고 위대한 어떤 순간들’ 인문 특강을 했다. 담당 생오지문예창작촌(이사장 문순태) 출신들 모임인 ‘글한량’의 부탁으로 강연을 하게 됐다.

구례에서 어떻게 지내느냐는 물음에 “원래가 촌사람이라 시골이 좋아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작가는 “이렇게 오래 고향에 있게 될 줄 몰랐다”며 “아흔넷의 어머니가 ‘아이, 껌은 머리가 나야. 눈이 밝아져야 한다’고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는 의미를 예뻐 말했다. 조선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광주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고향에서 보낸다.”

아마도 이번의 특강 ‘사소하고 위대한 어떤 순간들’ 또한 작곡의 그러한 생활과 무관치 않을 터였다.

“우리 삶의 사소한 순간들을 기억하고 의미를 부여해야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곧 문학의 본질이기도 하구요.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많은 것을 기억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봄, 벚꽃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쓸쓸함을, 그 봄의 빛깔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쓴 다섯 번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살았지만 그 중 기억해서 영원한 내 것으로 만든 계절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작품활동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서울이 낫지 않을까도 싶다. 삶의 패턴이 빠른 데다 현 시대의 고민들이 집결돼 있어서 창작을 하는 이들에게는 일정한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취재를 해서 글



을 쓰는 스타일이 아니라 시골 산다 해서 달라진 건 없다”며 “다만 시대의 문제를 포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강의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소도 기르고 개와 고양이도 키우느라 바쁘다. 게다가 어머니께서 제가 없으면 불안해하셔서 돈 버는 일 외에는 거의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며 “이런 생활이 아주 쾌적하고 행복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작가는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춘들이 이야기”를 소설로 쓸 구상을 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는 원래의 모습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소설 흥미를 끌 것으로 보인다. “자신을 그런 식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는 청춘들의 삶

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다”는 것에서 작가의 관심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예전 세대와 지금의 세대의 ‘소설 문법’은 많이 달라졌다. 대체로 기성 작가들은 젊은 세대의 사고력이나 독해력이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신에 요즘 친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우리 때보다 훨씬 방탕합니다. 자기의 취향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구요.”

그러면서 작가는 “사고력이 떨어졌다거나 소설 창작 능력이 떨어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앞 세대가 자신들의 시대의식으로 요즘 친구들을 규정지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소설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쓰기 과정을 통해 결국 “자신을 좀 더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수용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앞으로 그녀도 그녀는 꾸준히 소설을 쓰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고향을 지킬 것이다. 소설은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과 세계를 이해하는 장이므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형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수는 나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농부는 곡식을 키우고 가꾸는 것으로 세상을 이해하죠. 목수의 나무, 농부의 곡식이 곧 저에게는 소설입니다.”

한편 작가는 1996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 ‘고요나무’가 당선돼 등단했으며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효석문학상, 오늘의 소설상 등을 수상했으며 창작집으로 ‘행복’, ‘봄빛’, ‘정지아: 봄날 오후, 과부 셋’, ‘숲의 대화’ 등이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현대무용단의 ‘스윙’ 공연 모습

흥겨운 스윙 리듬에 맞춰 경쾌한 춤을

‘스윙’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국립현대무용단이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스윙’ (라이브밴드 버전)을 공연한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세 번째 공연으로 기획된 이날 공연은 라이브로 연주되는 스윙재즈 음악에 맞춰 무용수들이 빠르고 경쾌한 춤을 선보이는 공연이다.

‘스윙’은 안성수 예술감독 연출로 2018년 초연됐으며, 무용수들이 춤을 추지 않을 때에도 퇴장하지 않고 무대에서 휴식, 라이브 콘서트를 즐기는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이야기 없이 스윙재즈바에

서재켄질(Jack&Jill-남녀커플) 경연을 보는 듯한 콘셉트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뉴올리언즈 핫 재즈 스타일의 스윙음악을 연주하는 스웨덴 6인조 밴드 ‘젠틀맨 앤 갱스터즈’가 반주를 맡는다. 트럼본-클라리넷-색소폰-트럼펫-기타-더블베이스-드럼·보컬로 구성된 이들은 이날 ‘벅시(Bugsy)’, ‘류블라나 스윙(Ljubljana Swing)’ 등 자작곡을 포함한 17곡의 스윙재즈 곡을 연주한다.

안성수 예술감독이 안무·연출을 맡고 김민자·김민진·김성우 등 15명의 무용수가 출연한다.

S석 5만원, A석 2만원.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27일 국립현대무용단과 함께 공연하는 밴드 ‘젠틀맨 앤 갱스터즈’

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이해원 1위

23일 입상자 콘서트

정율성 선생의 음악과 예술혼을 널리 알리고 차세대 성악가 발굴을 위해 개최한 2019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에서 이해원(서울대 줄·사진)이 1위(상금 1500만원)의 영예를 차지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운기)은 지난 17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주성악콩쿠르 본선을 진행하고 1위 이해원 등 총 8명의 입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본선에는 105명의 지원자 중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선발된 14명이 참여했다. 소프라노 이해원은 정율성가곡 ‘매화들



을노라’, 한국가곡 ‘산유화’, 그리고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들린 그대 음성’을 노래해 1위를 차지했다.

2위 바리톤 정민성(연세대 줄), 3위와 정율성가곡상에 테너 정현우(연세대줄), 우리가곡상 메조소프라노 정주연(한국예술종합학교 줄), 반주상 피아니스트 박수호(한국예술종합학교

줄)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광주-전남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향토상과 고향상은 각각 소프라노 황지영(목포대 줄)과 바리톤 박성근(연세대 줄)이 수상했다.

테너 김정훈·이명현·박기훈, 바리톤 김기훈, 베이스 길병민, 소프라노 윤혜상 등 역대 수상자들은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한편 2019 광주성악콩쿠르 시상식과 입상자 콘서트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진행된다. 사전 무료예약을 관람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길 위의 인문학 강좌 무료 개설
전남대 도서관

‘작가 꿈꾸는 사람은 다 모여라.’

전남대 도서관(관장 이명규)이 ‘작가’를 꿈꾸는 지역주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글을 써서 출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지역주민과 학생, 외국인, 독서동아리 회원 등 작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길 위의 인문학 강좌’를 무료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전남대 도서관이 문화부의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됨에 따라 진행되는 참여자 중심의 인문 글쓰기 프로그램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 문학 미래가 될 젊은 작가’에 김금희 작가

인터넷 서점 예스24 선정

소설 ‘너의 도큐먼트’ 작가 김금희가 독자들이 뽑은 ‘2019 한국 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에 선정됐다.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한국 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작가를 뽑는 독자 투표를 진행한 결과 김금희 소설가가 1위에 뽑혔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는 지난 7월 15일부터 약 한달 간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됐으며 소설가 및 시인을 포함한 총 24명의 작가 후보를 대상으로 했다. 25만 3894명의 독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김금

희 작가는 5만 9695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018년 첫 장편 소설 ‘경애의 마음’으로 큰 주목을 받은 이후 단편소설 모음집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를 펴낸 김금희 작가는 미세한 감정의 결을 이루는 작품으로 독자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

2위는 5만 3119표(6.2%)를 받은 백수린 작가가 차지했으며 이소호 시인이 4만 9073표(5.7%)로 그 뒤를 이었다.

김금희 작가는 19일 신작 소설 ‘오직 한 사람의 차이’를 선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완도 전복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사시 + 피엔에고사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행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덴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용석 ☎ 010-8003-9000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분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입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통학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팔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그집고기

북구 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발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 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중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옆길)
하모(참정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틀스크린, 전동틀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틀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진주공방

동구 지산동 동구국민체육센터앞
가죽공예 수업 및 주문 제작
원데이클래스 학교수업 단체수업
가족소품만들기
☎010-3906-1718